

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

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란

바이러스성 감기의 일종입니다. 발열이나 목의 통증, 기침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(1주일 전후)가 많고, 극심한 피로감(권태감)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. 감염부터 증상 발현까지의 잠복기간은 하루에서 12.5 일(대체로 5 일에서 6 일)로 알려져 있습니다.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비말감염과 접촉감염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증상이 악화되면 폐렴으로 발전해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

감염증 예방 대책의 기본은 '손 씻기'와 '기침 에티켓'입니다.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는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도록 합시다.

발열 등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학교 및 회사는 쉬시기 바랍니다

발열 등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매일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시기 바랍니다

이런 분은 [귀국자·접촉자상담센터]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

아래 증상이 있는 분

감기 증상이나 37.5°C 이상의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
(해열제를 계속 먹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)

극심한 피로감(권태감)이나 숨이 가쁜 증상(호흡곤란)이 있다

※고령자나 당뇨병, 심부전 등의 만성질환자는 위 증상이 2일 정도 지속되면 해당

센터 상담 결과,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는 전문적인 [귀국자·접촉자외래]로 안내해 드립니다.

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고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
[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]에 대한 상담 안내

[귀국자·접촉자상담센터(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용 다이얼)]
0 9 3 - 5 2 2 - 8 7 4 5 (24시간 대응)

청각장애인은 FAX로 상담이 가능합니다

F A X : 0 9 3 - 5 2 2 - 8 7 7 5

※야간,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회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

※기재내용은 최신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